

구라보 – 면섬유 분자 개질로 소취 면사 KPC 프레시 개발

구라보의 섬유 소재부는, 일본 섬유 기계 학회의 강연회에서, 3대 악취를 흡착하여, 소취한다고 밝혔다. 이 새로운 면사는 ‘구라보 퍼펙트 코튼(Kurabo Perfect Cotton: KPC)’으로, 소취 기능이 있어 ‘KPC 프레시(Fresh)’로 부른다.

‘KPC’는 면섬유를 분자 레벨(분자 level)에서 개질하여 새로운 기능을 붙여 준다. 후가공과는 달리, 분자 레벨의 개질이기에 때문에 기능이 떨어지는 일이 거의 없다. 면 본래의 기능도 떨어지는 일은 없다. 개질 방법을 바꿈으로써 여러 가지 기능을 붙여줄 수 있으며, 이번은 첫 번째 작품으로서 소취 기능이 있는 면사를 개발하였다.

강연 중에 암모니아의 소취 기능을 실험하였다. KPC와 개질하지 않은 면사로 짠 천을 나란히 준비하고 암모니아를 샘플에 붙여줘 소취 기능을 비교, 확인하는 실험이었다. KPC는 순식간에 흡착하였던 암모니아를 소취하였는데, 개질을 안 된 면포는 냄새가 오래 남아 있었다. 소취 기능은 흡착하면서 이루어진다. 분해 소취는 아니지만 흡착 용량은 크다. 포화 상태가 되면 세탁하여 냄새의 근원을 씻어내면 기능은 회복한다.

구라보의 섬유 소재 부장은 “이제까지는 이와 같은 기능을 섬유에 덧붙여 주려면 합성 섬유에 의존해 왔다. 그것을 이번에는 면 100%로 가능하게 하였다. 세탁을 해도 기능이 떨어지지 않으며 몇 번이라도 세탁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50번 이상 세탁하여도 거의 똑같은 기능을 갖고 있다는 자료도 제시하였다.

구라보는 땀을 닦는 스포츠 타월, 더운 여름에 편리한 타월, 손수건, 욕실 타월(bath towel)의 파일 등의 용도를 고려하면서 판매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구라보는 타월용에 ‘스핀 에어(Spin air), 파논(Fanon), 샤레이드’의 3가지 차별화 원사를 판매하고 있는데, KPC는 네 번째 핵심 소재로 키워나갈 예정이다.♣